

# 중국 현대 소설 속에 재현된 전쟁·질병·기아 양상 연구\*

— 1930년대 무스잉(穆時英)의 소설을 중심으로

金明鶴\*\*

## <목 차>

1. 들어가며
2. 소설 속에 재현된 전쟁의 양상
3. 소설 속에 재현된 질병의 양상
4. 소설 속에 재현된 기아의 양상
5. 나오며

## 1. 들어가며

‘전쟁’, ‘질병’과 ‘기아’은 인간이 겪어온 세 가지 원죄 또는 인간의 세 가지 큰 적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들은 흔히 역사 속에서 겹쳐 나타나 인간들을 더 큰 불행에 빠뜨렸으며, 인류의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 왔다. 전쟁과 질병과 기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프레더릭 F. 카트라이트(Frederick F. Cartwright)와 마이클 비디스(Michael Biddiss)는 이렇게 설명했다. “역병과 기근(기아)과 전쟁은 상호작용하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빚는다. 전쟁은 농부를 들판에서 쫓아내고 곡식을 결판낸다. 곡식이 결단나

\* 본 논문은 2010년도 고려대학교BK21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면 기근이 일어난다. 기근으로 굶주려서 약해진 사람들은 역병이 덮치자마자 쉽사리 쓰러지고 만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질병이다. 역병이란 인간이 앓는 병이다. 기근(기아)은 좋지 않은 기상조건 때문이거나 곤충 혹은 박테리아의 습격을 받아 일어나는 식물과 가축의 병에서 비롯된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이기는 하나, 아무튼 전쟁은 집단적인 정신병이라 할 수 있다.”<sup>1)</sup> 이처럼 전쟁과 질병과 빈곤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문학에서도 전쟁, 질병과 기아를 다루지 않은 작품이 없었다.

1930년대 중국문학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이 문단의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좌익작가 연맹(中國左翼作家聯盟, 약칭 ‘左聯)’이 중국 좌익 문학운동의 중심적 기구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당시 전쟁·질병·기아는 프롤레타리아문학에서 계급의식과 계급투쟁을 묘사하기 위한 중심 소재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쟁·질병·기아에 관한 묘사는 결코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전유물이 아니며, 동시대의 중국 모더니즘 소설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무스잉(穆時英, 1912-1940)은 류나어우(劉呐鷗, 1900-1939), 스저춘(施蛰存, 1905-2003) 등과 더불어 중국 최초의 모더니즘 소설 유파인 ‘신감각파(新感覺派)’의 대표적 작가의 한 명으로서, ‘중국 신감각파의 명수(聖手)’·‘중국의 요코미쓰 리이치(橫光利一)’라는 칭호를 얻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발견된 무스잉의 소설은 총 41편인데, 그 중에서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은 <교류(交流)> (1930)·<구가 소령(空閑少佐)> (1932)·<중국 1931(中國一九三一)> (1932-33)·<우리 세대(我們這一代)> (1936) 등을 들 수 있으며, 질병을 소재로 한 소설은 <공동묘지(公墓)> (1932)·<옛집(舊宅)> (1933)·<세 의사의 광병(謝醫師的瘋症)> (1933)·<부친(父親)> (1934)·<백금의 여체 조각상(白金的女體塑像)> (1934?) 등을 들 수 있으며, 기아를 소재로 한 소설

1) 프레더릭 F. 카트라이트 & 마이클 비디스 지음, 김훈 옮김, 《질병의 역사》, 서울: 가람기획, 2004, 21쪽.

은 <감옥의 울부짖음(獄嘯)>(1930)·<남북극(南北極)>(1931)·<중국 1931> 등을 들 수 있다.

본고는 중국 현대소설 속에 재현된 전쟁·질병·기아의 문제에 주목하였으며, 1930년대 무스잉의 소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속에서 재현되는 전쟁·질병·기아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것들이 작품 속 플롯의 구성과 전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작가가 전쟁·질병·기아를 소설의 소재로 삼은 이유를 초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930년대 중국 모더니즘 소설은 동시대의 프롤레타리아문학과 상호 밀접한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스잉의 소설과 프롤레타리아문학과의 영향 관계도 살펴볼 것이다.

## 2. 소설 속에 재현된 전쟁의 양상

무스잉의 소설에서 전쟁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 적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교류>·<구가 소령>·<중국 1931>·<우리 세대> 등 외에도 <감옥의 울부짖음>·<우리의 세계(咱們的世界)>(1930)·<바다에서 사는 사람들(生活在海上的人們)>(1931)·<붉은 디아나(紅色的女獵神)>(1934) 등 소설에서도 전투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전쟁 규모가 작고 정규군 사이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먼저 작품을 예로 들어 무스잉의 소설 속에서 전투 장면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류>는 1929년 5월 23일에 완성한 장편소설로서, 1929년 5월 15일에 완성한 <감옥의 울부짖음>과 거의 동시에 쓴 작품이다. 때문에 엔자옌(嚴家炎)은 이 소설을 무스잉의 처녀작이라고 보고 있다.<sup>2)</sup> 주인공 상웅샤오(項雄霄)는 사촌 여동생인 루샤위(陸霞玉)와의 사랑이

2) 무스잉의 소설이 아직 전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주장을 뒤집어엎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嚴家炎, <穆時英長篇小說追蹤記>(嚴家炎、李今編, 《穆時英全集》第3卷, 577쪽.)

이루어지지 않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몸져눕는다. 건강이 회복된 그는 광저우(廣州)로 가서 국민혁명군에 가입한다. 소설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상송샤오가 참군할 때는 1926년이었다. 1926년 1월 중국국민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국민혁명군은 군벌들의 진공을 물리치기 위해 북벌할 것을 결정하고, 5월에 선전 부대를 파견하고 7월 초에 정식으로 북벌을 개시한다. 1927년 3월까지 지속된 북벌전쟁은, 국민혁명군 10만 명이 여러 집단의 군벌 85만 명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지만, <교류> 속에서의 전투 장면은 그다지 웅장하지 않다.

지금 탄알이 머리 위에서 훌훌 소리를 내면서 스쳐지나갔다. 저기에 있는 군기(軍旗)에는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었다. 포탄 하나가 그(상송샤오)의 오른쪽 50여 미터 되는 곳에서 터졌다. 자욱한 연기! 연기 속에서 흙덩이, 돌덩이와 눈부신 피가 튀어 올랐다. 사람 다리 한 짝이 날아와 그의 앞에 떨어졌다. 형체가 뚜렷하지 않은 피와 살이 힐끗 그의 눈에 띄었다. 포탄이 떨어진 곳으로부터 한 사람이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었는데, 포탄에 한쪽 팔이 이미 날아가 버렸다. 그 사람이 승샤오의 앞까지 막 뛰어왔을 때 공교롭게도 총알이 날아와 그 사람의 머리에 들어박혔다. 그 사람은 슬프게 소리를 지르며 뛰어올랐다가 땅에 넘어지면서 갑자기 땅 위에 있는 사람 다리를 손에 잡고는 기를 쓰면서 물어뜯었다. 곧이어 그 사람은 한동안 경련을 일으키더니 승샤오를 대신하여 죽었다!③

위의 인용문은 주인공 상송샤오의 눈을 통해 전쟁의 참혹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송샤오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어머니, 광저우의 술집에서 봤던 노래꾼 아가씨, 그리고 사촌 여동생 루샤위를 머릿속에 떠올린다. 또 그는 피가 묻은 손바닥을 훑으면서 냉소를 머금는다. 이러한 주인공의 정신 상태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난다.

3) 《穆時英全集》第1卷(p.69): 現在槍彈在頭上呼呼地穿過, 那面軍旗已有了許多洞。一顆砲彈在他右旁五十多米的地方爆裂了。一陣煙霧! 在煙霧中飛躍着泥屑, 石塊, 和耀眼的血。一條人腿飛了過來落在他的前面。他瞥了一眼, 只見一團模糊的血肉。一個人瘋狂似的從砲彈落地的那兒跑了過來, 一只手臂已給炸了去, 剛跑到他底前面, 恰巧一顆子彈打來, 直打進那人的腦袋, 他哀叫了一聲, 跳起來倒在地上, 猛烈地捉住了那只地上的人腿, 拼命的咬着, 接着抽搐了一陣便代雄霄死了! (<交流>)

아가씨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보다 더 사람을 도취시키는, 사신(死神)의 신호나팔이 울렸다!

“아, 나는 그 속눈썹 아래에서 반짝이는 눈물을 위해서이다!” 그는 지휘도를 뽑아들고 첫 번째로 돌격하였고 깃발을 든 사람이 뒤따랐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흩어져 있던 병사들이 모여 밀집부대(密集部隊)를 이루어 백병전을 하면서 앞으로 돌진하였다.

(중략)

그는 땅 위에 있는, 나무 그림자에 깔린 외롭고 우울한 그림자를 보면서 슬픔 속에 잠겼다. 그는 샬위(霞玉)를 생각하였고, 어머니를 생각하였고, 쟌쥔(劍君)을 생각하였고, 잉잉(盈盈)을 생각하였고, 모든 옛일과 원한을 생각하였고, 광저우시(廣州市)의 술집에 있는 그 노래꾼 아가씨도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아마 우시고 계실거야.” 그는 침울하게 생각하였다.<sup>4)</sup>

상승샤오는 ‘사랑하는 아가씨의 눈물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결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혁명에 참가하고 전투에 참가한 것이 아니었다. 이 작품에서 전쟁에 관한 묘사는, 연약했던 그가 전쟁 체험을 통하여 굳센 마음을 기르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진정한 사나이로 성장하게 하는 ‘연옥(煉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뒤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복수를 하고 자살하는 장면을 서술하는 데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가 소령>은 제1차 상하이사변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중국대륙 전체에 항일운동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상하이(上海)의 정세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일본군은 항일운동을 진압하고 만주 독립 음모에 대한 열강의 주의를 돌리고 중국 정부로 하여금 만주의 독립을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 1932년 1월 18일 상하이에서 매수한 중국인으로 하여

4) 《穆時英全集》第1卷(pp.70-71): 比女郎的溫柔的軟語更醉人的, 死神的號角響了!

“啊, 我爲了這眼睫毛下閃着的淚珠呀!” 他拔出了指揮刀第一個沖上去, 拿旗的跟着; 於是那伏在地上的散兵線合成了密集部隊肉搏地向前突進。

……

他看着地上的, 給樹影壓着的, 孤零零的, 憂鬱鬱的影兒, 傷感如潮地湧上來。他想起霞玉, 想起了媽, 想起劍君, 想起了盈盈, 想起了一切舊夢舊恨, 也想起了廣州市上酒店中的那個歌娘。

“媽大概在哭泣着吧。” 他黯然地想。( <交流> )

금 일본 탄발승을 저격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 결과 1월 28일 일본의 해군육전대와 중국의 십구로군(十九路軍) 사이에 전투가 발발했다. 3월 1일 중국군은 상하이에서 퇴각하고, 5월 5일 중국 정부는 일본과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구가 소령>은 당시 신문에 실렸던 실제 이야기를 소설화한 것이다. 일본군 소령 구가 노보루(空閑昇, 1887-1932)는 전투 중에 중상을 입어 포로가 되었다가 중국군 장교 간제란(甘介瀾)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나서 포로 교환을 통해 일본군에 귀환하였다. 구가는 포로가 되었던 사실을 수치로 여기고 1932년 3월 29일 자신의 부대가 분전(奮戰)했던 전장 묘우항(廟行)에 가서 권총으로 자살하였다. 당시 이 사실이 여러 신문에 실리면서 상하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다. 무스잉은 이 기사를 실화소설<sup>5)</sup>로 쓰지 않고 의식의 흐름 등 기법을 사용하여 인성의 복잡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서두 부분에서 전쟁 장면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

조금도 빛나가지 않고, 구가 소령의 바로 뒤에서, 갑자기 수류탄이 터졌다. 그와 얼마 멀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이 비명을 질렀다. 고개를 돌려 보았더니 그 사람은 이를 악물고 끙끙거렸다. 비참하다! 신경섬유 조직에 마치 1만 마리의 메뚜기가 기어 다니는 것처럼 그토록 괴로웠다. 한동안 선득하더니, 피가 등판을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상처를 입었다!<sup>6)</sup>

이처럼 <구가 소령>에서의 전투 장면은 수류탄 하나가 터지고 주인공이 중상을 입는 것이 고작이다. 이 소설의 중점은 구가 소령의 심리 묘사, 특히 그가 중국인 간호사 리(黎) 아가씨를 사랑하는 마음과 전쟁의 의미에 대하여

5) 프랑스로 '열쇠' 또는 '단서가 있는 소설'이라는 뜻인 실화소설(實話小說, roman a clef)은 소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작품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알아 낼 수 있도록 쓴 소설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실제 인물을 다소간 허구적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묘사 문학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신회천·조성준 편저, 《문학 용어 사전》, 서울: 청어, 2001, 364쪽 참조.

6) 《穆時英全集》第2卷(p. 70): 一點不含糊的, 就在空閒少佐的後邊兒, 手榴彈猛烈的炸了起來。在脚下沒多遠, 有人叫媽, 一回兒便咬緊了牙哼唧着。慘哪! 神經纖維組織那兒像一萬只螞蚱在爬着那麼的難受。一陣冷, 覺得血順着脊梁蓋兒往下淌。帶了傷咧! (<空閒少佐>)

회의를 느끼는 염전(厭戰) 심리를 묘사하는 데 있다. 때문에 이 소설에서 전투 장면은 다만 사건 전개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쟁소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우군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적군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작품은 전혀 다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상하이사변 당시 일본군이 적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스잉은 이들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실적 혹은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일본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소설에서의 '구가 소령'은 맞서 싸워야 할 '적'이라기보다 치열한 전장에서도 착한 인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자는 이 소설을 통해 전쟁 시기의 현실적 모습을 객관화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최근 학계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중국 1931>과 <우리 세대>는 장편소설 <중국 행진(中國行進)>의 일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작품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것들을 독립된 두 개의 작품으로 보고자 한다. 무스잉의 대학교 동창생 자오자비(趙家璧)의 말에 의하면, 무스잉은 미국 작가 더스 패서스(Dos Passos, 1896- 1970)의 <1919>라는 소설을 읽고 영감(靈感)을 얻어 파노라마 식으로 1931년의 상하이를 재현해 보려 했다고 한다. 무스잉은 이 소설을 완성하여 처음에는 <중국 1931>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가 나중에 <중국 행진>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sup>7)</sup> 다른 일설에 의하면, 무스잉은 <한 밤중(子夜)>의 영향을 받고 마오둔(茅盾)처럼 1930년대의 중국 사회를 대규모로 묘사하는 장편소설을 창작하려 하였다고 한다.<sup>8)</sup> 무스잉이 <《공동묘지》 자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반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나이트클럽의 다섯 사람(夜總會里的五个人)>(1932)은 <중국 행진> 속의 한 단편(斷片)이다.

<중국 1931>의 전반부는 도시 부르주아계급의 부패하고 혼란한 생활을 보여주고, 후반부는 농촌의 불안정·붕괴·폭동·반항 등을 보여주고 있다.

7) 더스 패서스는 3부작 《미합중국(U. S. A.)》을 썼는데, <42도선(The 42nd Parallel)>(1930), <1919년>(1932), <거금(The Big Money)>(1936) 등으로 구성되었다.

8) 曠新年, <穆時英의 佚作《中國一九三一》>, 《杭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3년 4期, 39-43쪽 참조.

이 소설의 후반부에 굶주린 농민들이 무장 부대를 조직하여 지주계급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쿵! 폭죽 하나가 날아오르더니, 공중에서 다시 쿵하고 터졌다.

“돌격 앞으로!”

장창(長槍)의 끝이 앞에서 번쩍거리고, 많은 횃불들이 읊으로 쳐들어갔다. 횃불 아래에는 낫·도끼·기병도(騎兵刀)을 꽂 잡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다.

읍 어귀의 돌다리에서, 여러 가닥의 손전등 불빛이 비추더니, 곧 따, 따, 따, 따, 따! 기관총의 검은 총구멍이 불꽃을 튀기면서 퍼부었다.

“아이고머니!”

앞뒤의 사람들이 쓰러졌다. 한 다발의 탄환을 다 쏘았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땅에 가득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돌진했다가 다시 후퇴하였고, 후퇴하였다가 다시 돌진하였다. 기관총이 투투투 하면서 쏘 뺐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쓰러졌다. 끝내는 후퇴하였고, 반 리 밖으로 퇴각하였다.<sup>9)</sup>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소설에서 전투 장면은 그다지 웅장하지 않으며, 농민들은 일방적으로 학살당하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다. 요컨대 무스잉은 이 소설에서 전쟁의 비인간성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전쟁 시기의 현실적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이 소설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무스잉은 이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강렬한 역사의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소설은 아이들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덩링(丁玲)의 단편소설 <물(水)>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고 한다.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문학과의 연관성을 배제하여 분석한다면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

9) 《穆時英全集》第2卷(p.464): 轟! 一個爆仗飛了上去, 在半空裏又轟的炸了開來。

“殺!”

鏢的尖兒閃在前面, 一團團的火把向鎮上沖過去, 火把下, 捏緊了鐮刀, 斧頭, 馬刀的人們奔走着。

鎮口那條石橋那兒, 一道道的光閃了過來, 馬上, 達, 達, 達, 達, 達! 機關槍的黑槍口迸着火花, 轉起來啦。

“我的媽呀!”

往前往後的倒了下去, 等到一排槍彈完時, 已經倒了一地的人。他們沖上去又退下來, 退下來又沖上去。機關槍哭哭地轉。人一個個倒下去。末了, 還是退了下去, 退到半里外。(〈中國一九三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sup>10)</sup>

<우리 세대>도 <구가 소령>과 마찬가지로, 상하이사변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제2차 상하이사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1936년 2월부터 4월까지 《시대일보(時代日報)》에 연재되었던 소설인데, 무스잉이 상하이를 떠나 홍콩으로 가면서 연재가 중단되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했다. 일본이 중국의 화북 지역을 침략하자, 상하이에서 항일운동이 거세졌다. 같은 해 8월 9일 일본 해군육전대의 중위 1명과 수병 1명이 중국보안대에 사살되었다는 이유로 일본은 상하이에 육군 2개 사단을 파병했다. 8월 14일 상하이에서 중국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후 난징(南京)·우한(武漢) 등 중국 전토로 전쟁이 확대되었다.

이 소설은 전쟁 체험자의 시각으로, 역사의 진실한 장면과 전쟁에 처한 사람들의 진실한 느낌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 소설에서도 무스잉은 자신의 강렬한 역사의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군이 “1932년 1월 28일 0시 27분, 자베이(閘北)을 향해 첫 번째 총탄을 쏘았다!”는 점, 1932년 1월 29일 잠시 휴전이 있었다는 점, 중국군(즉 십구로군)에 대한 외모 묘사 등은 모두 역사 사실과 거의 일치하다.

<우리 세대>의 주인공 쉬스제(許仕介)는 대학생이자 부르주아계급의 귀공자이다. 그는 “평온하고 밝은 도시의 하늘 아래에서, 필요없는 전쟁이 황당하게 발생하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sup>11)</sup>지만, 중국군 병사들이 일본군과 싸우다가 죽는 것을 보고 자신도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선다. 주인공은 중국군 소대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나는 전쟁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에게 소총 한 자루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sup>12)</sup> 다음의 인용문에서 쉬스제의 격앙된 감정

10) 曠新年, <穆時英的佚作《中國一九三一》>, 《杭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3年04期, 39-43쪽 참조.

11) 《穆時英全集》第2卷(p.500): 許仕介無論怎樣也不能相信在這平靜而燦爛的都市的天空, 一個沒有必要的戰爭會荒唐地爆發起來。(〈我們這一代〉)

과 뜨거운 동포애가 잘 드러난다.

바로 이때, 한 병사가 갑자기 모래주머니 위로 뛰어올랐다. 그가 막 모래주머니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이미 장갑차가 발포한 총알에 맞고 특하고 떨어졌다. 쉬스제는 그 병사가 매우 고통스럽게 두 팔을 앞으로 내밀어 땅 위에서 기어가면서 오른 손에는 수류탄 하나를 꼭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병사는 몇 걸음 기어가다가 갑자기 뛰어오르면서 손을 벌렸는데, 쿵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마치 땅 위에 천둥이 치는 듯하더니, 연기 속에서 돌덩이와 사람의 팔다리가 함께 튀어 올랐다. 장갑차도 익살스럽게 튀어 오르더니 몸체를 기우뚱하다가 육중하게 땅 위에서 뒤집혔다.

이러한 장렬한 장면을 보고, 쉬스제는 감동하여 하마터면 눈물을 흘린 뻔하였다. 그는 뛰쳐나가 그 병사를 끌어 오려고 하였다. 연기 속을 살펴보면, 그 용감한 병사가 어디에 누워 있는지 땅 위에서 찾았으나 그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후략)<sup>12)</sup>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쉬스제는 이 전투에서 적을 한 명도 죽이지 못하고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병원에서 그는 의사와 간호사가 자신을 돌봐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제지를 당하자 또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해 달라는 요구를 제기한다. 때문에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민족의식에 근거하여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가했는지 의문을 갖는 동시에, 지식인 계급의 애국 애족 정신에 회의를 품게 된다. 이 전쟁에서 주인공이 살아남은 것은 우연성에 지나지 않으며, 죽음에의 충동과 그것이 빚어낸 의식이 바로 작가의 초월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12) 《穆時英全集》第2卷(p.512): 許仕介說下去道: “我所要求的不是生命, 而是死亡! 我有權利要求參加戰爭, 我有權利向你要求一枝步槍!” (<我們這一代>)

13) 《穆時英全集》第2卷(p.507): 就在這時候, 一個兵士猛地跳上了沙袋, 剛跳跳到沙袋外面去的時候, 已經給鐵甲車上的子彈掃着了, 撲地跌了下去。他看見他非常痛苦地把兩隻手臂伸在前面, 在地上爬着, 右手還緊緊地捏了一顆手榴彈。他爬了幾步路, 忽然又跳了起來, 只見他一撒手, 轟的一聲, 地上像爆了一個響雷, 碎石子在煙霧裏邊和人的肢體一同地直跳了起來。那輛鐵甲車也滑稽地跳了起來, 側了側身子, 笨重地跌翻在地上了。

看了這樣英勇的風景, 許仕介差不多感激得要哭出來似地, 他想沖出去把這個兵士拖進來, 他從煙霧裏望出去, 在地上搜尋着想知道這個英勇的戰士躺在那裏, 可是他什麼也看不到, …… (<我們這一代>)

이 소설은 전쟁에 대한 실감 및 복잡하고 광활한 전쟁 장면이 결핍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인의 체험을 중시한 심리소설 및 전쟁소설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류>·<구가 소령>·<중국 1931>·<우리 세대> 등 소설에는 모두 전쟁에 관한 묘사가 있지만, 작품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다. <교류>의 주인공이 전쟁에 참가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실련 때문이며, 전쟁 체험은 다만 주인공의 마음을 단련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이것은 나중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복수를 하고 자살하는 장면을 서술하는 데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다. <구가 소령>은 당시의 신문 기사를 소설화한 것으로서, 사실적 혹은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주인공이 '적'이라기 보다는 착한 인성을 소유한 인간임을 형상화하였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전쟁 시기 현실적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중국 1931>은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서, 작가의 강렬한 역사의식을 표현하였다.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문학과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작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세대>의 주인공은 동포들이 전사하는 것을 부고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하지만 민족의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무스잉은 이 소설을 통해 지식인 계급의 충동적이고 허영에 들뜬 애국 애족 정신을 풍자하고자 하였다. 전쟁에서 주인공이 살아남은 것은 우연성에 지나지 않았고, 죽음에의 충동과 그것이 빚어낸 의식이 바로 작가의 초월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쟁에 관한 묘사가 위의 4편의 소설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지만, 거기에는 시종일관 변하지 않은 작가의 창작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스잉이 형식으로 현실에 참여했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가 1930년대 말에 왕정웨이(汪精衛) 괴뢰정부의 '평화구국(平和救國)' 정책에 동조한 것도, 아마 이 창작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이

14) 李楠, <一個人的戰爭和歷史——穆時英小說《我們這一代》印象>, 《上海文學》, 2006年02期, 111쪽 참조.

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소설 속에 재현된 질병의 양상

인류 역사의 비극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참혹한 전쟁들이다. 그러나 질병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고통에 비하면 전쟁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의 참상은 거의 필연적으로 질병의 만연을 동반하여 전쟁 자체를 더욱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그래서 황상익은 이렇게 말한다.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이자 질병에 대한 극복과 좌절의 역사다.”<sup>15)</sup> 왜냐하면 질병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의 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병은 인간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많은 작가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쓴다. 작가는 환자의 투병 과정을 보았을 수도 있고, 작가 자신이 질병에 걸렸던 적이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중대한 질병을 목격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가들 중에 질병의 고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 예를 들면, 셸리(Shelly) · 키츠(Keats) · 휘트먼(Whitman) · 체호프(Chek hov) · 도스토예프스키(Dostoevskii) 등이다.

무스잉의 소설 중에서 질병을 소재로 한 소설은 <공동묘지> · <옛집> · <세 의사의 광병> · <부친> · <백금의 여체 조각상> 등을 들 수 있다. <옛집>과 <부친>는 모두 1인칭 시점으로 쓰인 자서전적인 성격이 강한 소설이다. 그리고 두 작품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매편으로 볼 수 있다. <옛집>의 중심 부분은 화자인 ‘나’가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옛집을 회상

15) 황상익, <인류 역사는 곧 질병에 대한 역사이다>, (헨리 지거리스트 지음, 황상익 옮김, 《문명과질병》, 파주: 한길사, 2008, 13쪽.)

하는 부분이다. '나'가 16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경영하는 황금거래소(金子交易所)가 파산하여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끝내 옛집을 내놓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 사업에서 연거푸 실패한 아버지도 몸져눕게 된다. <부친>은 '나'의 가족이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소설은 현재와 과거의 상황을 대조하면서 서술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의사로부터 드디어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고 끝내 세상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옛집>과 <부친>은 모두 '나'의 아버지의 불치병에 대해 서술하지만, 구체적인 병명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독자들은 소설 속에서 묘사된 증상으로부터 '나'의 아버지의 병명을 추정할 수 있다.

① 아버지는 침대에서 반년을 누워 있다가 차츰 병이 나아졌다. 병을 앓고 난 후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아버지는 매일 항상 깊은 생각에 잠겨 소파에 앉아 기침을 하면서 신문지의 문화면을 읽고 세월의 발걸음이 낙엽처럼 훑날리는 소리를 조용히 들었다. (후략)

② (전략) 아버지는 나의 몸에 기대어 서서 기침을 하였는데, 관자놀이에 몇 방울의 땀이 맺혔다. 한참 동안 기침을 하다가 멈추고 눈을 감고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콧구멍에서 차츰 콧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③ (전략) 이때 아버지가 기침을 하였는데 아주 심하였다. 얼굴의 모든 핏줄이 솟아올랐고, 근육이 모두 경련을 일으켰다. 한참 동안 기침을 하였지만, 가래를 뱉지 못하고 기침만 하였다. 정말이지 아버지는 기침을 할 기력조차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목구멍에서 울려나오는 공허한 기침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마치 녹이 슬어버린 종처럼. 16)

폐결핵의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과 고열, 피가래가 나오고 잠잘 때 식은땀을 흘리고 몸이 빠르게 쇠약해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뺨은 상기된 채

16) 《白金的女體塑像》(pp.69, 77, 32): ① 在床上躺了半年, 病才慢慢兒的好起來, 害了病以後的父親有了頹唐的眼珠子, 蹣跚的姿態, 每天總是沉思地坐在沙發裏咳嗽着, 看着新聞報本埠附刊, 靜靜地聽年華的聲音枯葉似地飄過去。…… (<舊宅>)

② …… 他站住了靠在我身上咳嗽起來, 太陽穴那兒滲出來幾滴冷汗。咳了好一會才停住了, 閉上了眼珠子微微地喘着氣, 鼻孔裏慢慢兒的挂下一條鼻涕來。 (<舊宅>)

③ …… 這時候他咳嗽起來, 咳得那麼厲害, 臉上的筋全暴出來, 肌肉全抽搐着。咳了好一回, 就咳不出痰來, 只空咳着。真的, 父親連咳嗽的力氣都沒了, 我只聽得他喉嚨那兒發着空洞的咳聲, 一隻鏽壞了的錘似地。 (<父親>)

광대뼈가 솟아나고 눈이 쾅해지며 산송장 같은 모습으로 되어간다. 이상의 증상으로 미루어 보아 <옛집>과 <부친>에서 '나'의 아버지의 병이 폐결핵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 중 언젠가는 병에 걸려 고통을 겪는다. 환자는 한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폐결핵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주위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만성질환에 걸렸다면 환자를 간호할 책임문제와 경제적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질환은 반드시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친지 혹은 친척 간의 관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부친>에서 '나'의 아버지는 자신이 앓아누운 지 반 년이 되었지만 친척과 친지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인정이 눈곱만큼도 없다”고 한탄하는데, 이것은 위의 논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sup>17)</sup> “본질적으로 만성질환은 환자의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정체성(타인이 환자에 대해 가지는) 그리고 자아의식(자기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유쾌한 사람들과 유쾌한 웃음소리 속에서 자랐으며, 16살 이전까지는 인생의 쓴맛이 무엇인지 몰랐다.”<sup>19)</sup> 아버지의

17) 《白金的女體塑像》(pp.25-26): 過了一回兒, 他咳嗽了一聲兒——

“人情真的比紙薄啊!”那麼地開了頭; 每一個字, 每一個句子全是那麼沉重地, 遲緩地, 從他的嘴唇裏邊蝸牛似地爬了出來: “從前我只受了些小風寒, 張三請中醫, 李四請西醫, 這個給煎藥, 那個給裝煙, 成天你來我去的忙得什麼似的。現在我病也病了半年了, 只有你媽閑下來給我裝筒煙, 敬芳師父, 我總算沒薦錯了這個人, 店裏沒事, 還跑來給我請下安, 煎帖藥。此外還有哪個上過我家的門? 連我一手提拔起來的那些人也沒一個來過啊! 他們不是不知道, ”父親的話越來越沉重, 越來越遲緩。卻是越來越響亮, 像是他的靈魂在喊叫着似的。“在我家門口走過的時候總有的, 順便拐進來, 瞧瞧我的病, 又不費力氣, 又不費錢財。外面人別說, 單二瞧我家的親戚本家吧, 嫡親的堂兄弟, 志清——”忽然咽住了話, 喝了口茶, 才望着天花板: “我還是我, 人還是那麼個人, 只是現在倒楣了, 是個過時人罷咧! 真是人情比紙薄啊!”便閉上了眼珠子, 嘴唇顫抖着不再說話。(〈父親〉)

18) 사라 네틀던 지음, 조효제 옮김,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서울: 한울, 1997, 104쪽.

19) 《白金的女體塑像》(p.60): ……我就在那些愉快的人, 愉快的笑聲裏邊長大起來。在十六歲之前, 我從不知道人生的苦味。(〈舊宅〉)

사업이 파산되고 아버지마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사실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나'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옛집>과 <부친>에서의 아버지의 병은 주인공인 '나'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 의사의 광병>과 <백금의 여체 조각상>은 작중인물이 같고 플롯도 거의 같은데, 전자는 주로 세 의사의 심리를 묘사하고, 후자는 '백금의 여체'로 불리는 여성 환자를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때문에 <세 의사의 광병>은 <백금의 여체 조각상>의 또 다른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백금의 여체 조각상>이 최초로 발표된 연도를 알 수 없다. 만약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다면, 마땅히 <세 의사의 광병>을 <백금의 여체 조각상>의 초판본으로 봐야 한다. 두 작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질병은, 온몸이 백금처럼 흰색으로 변한 부자 부인의 폐결핵과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해 온 남성 의사의 정신 이상이다.

결핵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질병이다. 기원전 5000년 무렵의 선사 시대 사람의 뼈에서 결핵의 흔적이 나타났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수나라 시대의 의학책에 폐결핵이라고 추정되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결핵은 아주 오래 전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인간을 병들게 했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불충분하고 부실한 식사와 아울러 빈곤한 생활, 열악한 노동 조건만이 폐결핵을 일으키는 주요인은 아니다.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혹은 긴장도 폐결핵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 의사의 광병>과 <백금의 여체 조각상>에서는 부유한 부인이 폐결핵에 걸리고, <옛집>과 <부친>에서는 사업에 연거푸 실패한 아버지가 좌절하다가 폐결핵에 걸리는데, 이것은 위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좀 더 나은 기후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이 폐결핵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근대화 초기의 생각과, 폐결핵 환자는 에로틱하고 성적 욕구가 강하다는 고전적인 생각 등이 <세 의사의 광병>과 <백금의 여체 조각상>에 모두 고스란히 묘사되고 있다.<sup>20)</sup> 그리고 두 작품에서는 모두 여성 폐결핵 환자

가 에로틱하고 성적 욕구가 강하다는 고전적인 생각을 작품 속에 반영하여, 세 의사의 내심독백, 의식의 흐름 등과 같은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공동묘지>는 일인칭 남주인공인 '나'(커위안(克淵))와 여주인공인 어우양링(歐陽玲)의 이루지 못한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어머니가 묻혀 있는 상하이 교외의 공동묘지에서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지만,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링 아가씨는 홍콩으로 돌아가고, '나'는 베이핑(北平, 현재의 베이징)으로 전학을 간다. 후에 서로 몇 통의 편지를 주고받다가, '나'는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머니는 시후(西湖)의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5월의 어느 날 밤에, 폐결핵은 그녀(어머니)의 유산(遺産)이었는데, 그 유산을 물려받은 후 나는 운동과 절연되었지요.” 폐결핵을 말할 때 그녀는 신경쇠약증 환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중략)

폐병에 걸린 아가씨를 좋아하면서, 갑자기 언젠가 그녀가 폐 결핵균의 먹잇감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고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다면 아가씨는 왜 홍콩에 가서 살지 않나요? 거기에 아주 좋은 요양원이 있지 않나요? 남쪽 지방의 햇빛이 아가씨의 병을 치료해 줄 거예요.” (후략)<sup>21)</sup>

20)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白金的女體塑像》(pp.5, 7-8): ① (失眠, 胃口呆滯, 貧血, 臉上的紅暈, 神經衰弱; 沒成熟的肺癆呢! 還有性欲的過渡亢進; 那朦朧的聲音, 淡淡的眼光。)

沉澱了三十八年的膩思忽然浮蕩起來, 謝醫師狼狽地吸了口煙, 把煙斗拿開了嘴道:

“可是時常有寒熱?”

② 他嘆了口氣, 豎起身子來。

“你這病是沒成熟的肺癆。我也勸你去旅行一次。頂好是到鄉下去——”

“去休養一年?”她一邊鈕上扣子, 一邊瞧着他, 沒感覺似的眼光在他臉上搜求着。……(<白金的女體塑像>)

21) 《公墓》(p.152): “母親是死在西湖療養院的, 一個五月的晚上。肺結核是她的遺產; 有了這遺產, 我對於運動便是絕緣體了”說到肺結核, 她的臉是神經衰弱病患者的。

戀着一位害肺病的姑娘, 猛的有一天知道了她會給肺結核菌當作食料的, 真是痛苦的事啊。可是痛苦有嗎用呢?

“那麼, 你幹嗎不住到香港去哪? 那兒不是有很好的療養院嗎? 南方的太陽會醫好你的。”……

(<公墓>)

링 아가씨의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사망했으며, 그녀도 폐결핵 환자이다. 때문에 그녀는 “폐결핵은 어머니의 유산(遺産)”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로부터 폐결핵이 유전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는 남쪽 지방의 따뜻한 햇볕이 폐결핵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폐결핵은 가족 내에서 전염되기 쉬운 질병이지만 유전되지는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결핵은 양질의 식사, 햇볕, 신선한 공기와 휴식 등에 의존하여 치료했으나, 그것은 간접적인 치료 방법에 불과했다. 폐결핵이 유전된다는 것, 햇볕이 폐결핵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공동묘지>에서 모두 고스란히 묘사되고 있다. 이 소설에서 폐결핵은 육체의 병이라기보다 일종의 은유로 쓰이고 있다. 죽어 가는 사람을 훨씬 더 아름답고 숭고하게 묘사하기 위해 폐결핵이라는 장치를 이용했으며, 폐결핵을 둘러싼 공상을 통해 링 아가씨의 죽음을 미화하고 있다.

#### 4. 소설 속에 재현된 기아의 양상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빈곤과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빈곤이란 인간의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며, 크게 물질적 욕구와 비물질적(정신적) 욕구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시기의 특정 사회에서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는 음식, 주거와 의복에의 욕구들이다. 그중에서 특히 음식에의 욕구가 가장 기본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기아란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곯는 것, 즉 굶주림을 일컫는다. 중국에서 역사가 기록된 이후 대부분의 시대에 걸쳐 기근이 발생하였다. 일례를 들면 1876년 가을에 시작되어 3년 동안 중국 북부를 유린한 기근은 중국인들에게 많은 고통과 죽음을 안겨 주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930년대 중국문학에서 문단의 주류적 위치를 차지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이었다. 당시 프롤레타리아문학에서는 계급 의식과 계급투쟁을 묘사하기 위해 전쟁·질병·기아 등을 소재로 자주 사용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중국의 모더니즘 작가들도 자신의 작품 속에 구미 열강과 일본의 침략,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의 삶, 지식인 계급의 삶과 그들의 고민, 근대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을 많이 담았다. 무스잉의 작품 중에서 기아를 소재로 한 소설은 <감옥의 울부짖음>·<남북극>·<중국 1931> 등을 들 수 있다.

<남북극>은 무스잉의 출세작이며 초기의 대표작으로서, 발표 당시 ‘프롤레타리아 소설의 백미(白眉)’로 불리기도 했다. 주쯔칭(朱自淸, 1898-1948)은 무스잉의 <남북극>의 특징을 “중국식의 유량자, 룬펜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 묘사가 명쾌하고 힘이 있음, 새로운 대중화 형식의 탐구”<sup>22)</sup>라고 요약하였다. 이것은 이 작품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남북극>(1931)의 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나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다행히 여름이었기에 밤에는 작은 골목을 찾아서 골목 어귀에서 눈을 붙였다. 하루 종일 먹지 못하였기에 뱃속에서 꼬르륵거렸다. 길가에서 무료로 주는 찻물을 보기만 하면 목숨을 내던지고 한 바탕 마셨다. 그리고는 허리띠를 풀라매고 잠을 자러 갔다. 이튿날 아침에 깨어나서는 배가 매우 고퍼서, 어쩔 수 없이 웃옷마저 벗어 지당을 잡혔다. (후략)

먹을 밥이 있을 때는 밥맛을 몰랐는데, 먹을 밥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밥이 향기롭고 달콤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 한 끼에 나는 밥이 반쯤 담겨 있는 두 통의 밥을 전부 먹어치웠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웃기 시작했다. 내가 입맛을 쪼뼛다시면서 도망가려고 할 때 갑자기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고, 사내 2, 30 명이 손에 쇠몽둥이와 장도(長刀)를 들고 멀리서 오는 것이 보였다.<sup>23)</sup>

22) 《穆時英全集》第3卷(p.524): 穆時英<南北極>: a.幾千年封建制度破產之下產生出來的個人主義的末路英雄, 一條叛上層社會的英雄好漢。中國型的流浪漢。b. 作品本身意識形態上的缺陷。流氓無產階級的意識。c. 作者表現力是夠的, 描寫明快有力。d. 新的大眾化的形式的探求。(朱自淸, <中國新文學研究綱要>)

23) 《南北極》(pp.77, 79): …… 我整天的滿處里打游飛, 幸亏是夏天, 晚上找個小胡同, 在口儿上打个盹; 一天沒吃東西, 肚皮儿咕咕咕的叫屈, 見路旁有施茶的, 拼命地喝一陣子, 收緊了袴帶, 就睡去了。第二天早上醒回來餓極了, 只得把短褂兒也脫下來當了。……

위의 인용문은 일인칭 주인공인 '나'가 시골에서 막 상하이로 왔을 때의 삶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소녀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화를 가출하여 상하이로 온 것이다. 시골에서 살 때 '나'의 생활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배를 굶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상하이로 온 '나'는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옷을 저당 잡히고 물로 배를 채우기도 하다가 급기야 다른 사람의 밥을 빼앗아 먹는 지경에 이른다. 시골에서는 그나마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사람이 도시에 와서는 졸지에 빈민이 되고 만 것이다.

무스잉은 193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륙잡지(大陸雜誌)》 제1권 제5—7기(期)에 <중국 1931>를 발표하였으나 미완인 상태로 끝났다. 1936년 3월에 간행된 《양우(良友)》 화보 제113기(期) 뒤표지에 이 소설을 위한 광고가 실려 있다. “3년 전에 예고된 이 장편은, 지금 전부 탈고되었다. 1931년의 대홍수, 만주사변(滿洲事變, 즉 9·18사변) 전야 중국 농촌의 몰락, 도시에서의 민족 자본주의와 국제 자본주의의 투쟁을 썼다. 작가는 여기에서 그의 특유하고 경쾌한 필치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구성(플롯)에도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sup>24)</sup>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무스잉은 이 장편 소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으며 조판(組版)까지 한 적이 있었지만, 출판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퇴하였다. 성(城)의 북쪽 하오런산(好人山) 속으로 후퇴하였다. 산속에는 몇 개의 마을이 있었고, 그들보다도 더욱 가난한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굶어서 얼굴이 노랑고, 밀을 조금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죽을 한 끼씩 먹었는데, 그들이 산속으로 왔을 때는 밀 한 알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귀신·요괴처럼 대하였다. 그들에게 방안에 앉거나 처마 밑에 누우라고 하였다.

---

有飯吃的時候兒不知道飯的味兒，沒吃的了才知道飯可多麼香恬。這一頓我把擔着的兩半桶飯全吃完了。看的人全笑開啦。我正舐舌咂嘴地想跑，看的人哄的全散了開去，只見那邊來了二三十個小子，提着鐵棍馬刀。(〈南北極〉)

24) 《穆時英全集》第3卷(p.436): 這一部預告了三年的長篇，現在已全部脫稿了。寫一九三一年大水災和九一八的前夕中國農村的破落，城市裏民族資本主義和國際資本主義的鬥爭。作者在這裏不但保持了他特有的輕快的筆調，故事的結構，也有了新的發見。”(〈中國行進〉廣告)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소!”

“우리는 배를 굶으면서 며칠 동안 싸웠어요.”

“이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닷새 동안 굶었다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산전(山田)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오!”<sup>25)</sup>

<중국 1931>는 1930년대 초의 상하이와 그 근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반부는 도시 부르주아계급의 부패하고 혼란한 생활을 보여주고, 후반부는 농촌의 불안정·붕괴·폭동·반항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의 후반부에서 지주계급의 혹독한 소작료 징수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지주계급과 담판을 벌이다가 급기야 무장투쟁을 벌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위의 인용문은 농민들이 지주계급의 군대에 쫓겨서 산속으로 후퇴했다가 거기에서 자신들보다 더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다.

일반적으로 상하이는 두 차례에 걸친 근대화를 통해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하이의 첫 번째 근대화는 1927년부터 1937년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상하이의 첫 번째 근대화 시기는 상하이의 조계(租界)뿐만 아니라 화계(華界, 중국인 거주 지역)의 도시 근대화가 거족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때이다.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의 근대화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중국의 많은 농촌은 몰락하였고 농민들은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굶주렸다. 그러나 농민들이 도시로 가게 되면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다. 사실상 농촌의 빈곤과 기아가 사람들을 도시로 몰아내면, 사람들은 도시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안함과 불확실한 생계

25) 《穆時英全集》第2卷(p.479): 退回來, 退到城北好人山裏。山裏有一些村子, 住着一些比他們還要窮的厲害的人, 餓得臉發黃, 也不知怎麼過下來的, 只有一些麥子。天天喝一頓粥, 等他們到山裏時, 連麥子也找不到一顆啦。這些人把他們鬼怪似地看待着, 讓他們坐到屋子裏, 躺到屋簷底下。

“弄點東西我們吃吧!”

“可是什麼也沒有啊!”

“我們餓着肚子打了好幾天咧。”

“這村子裏的人全餓了五天咧。你知道, 我們種的是山田哪!”(<中國一九三一>)

수단을 만나게 된다. 결국 그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되는 것이다.

무스잉이 소설을 창작한 시기는 대체로 1929년부터(발표는 1930년부터) 1937년까지이다. 이 시기 상하이에는 여러 면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었다. 때문에 무스잉은 상하이의 근대성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며 동시에 상하이 근대화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스잉은 자신의 체험을 소설화하였으며, 그의 소설 속에서도 상하이의 근대성이 재현된다.

<감옥의 울부짖음>은 감옥에 갇혀 있던 수감자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폭동을 일으키고 탈옥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소설 전편이 일인칭 주인공의 내심독백으로 쓰여 있다. ‘나’는 밤에 배가 고프다 못해 동료를 잡아 먹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변기 속의 대변을 먹을 생각을 하기도 한다.<sup>26)</sup> 이러한 상황은 ‘나’의 기아가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스잉은 자신의 작품 속에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의 기아를 묘사함으로써, 1930년대 중국의 급변하는 시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의 근대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5. 나오며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중국 현대 소설 속에 재현된 전쟁·질병·기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무스잉의 소설 속에서 재현되는 그것들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 그것들이 작품 속 플롯의 구성과 전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26)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穆時英全集》第2卷(p.247): …… 可是, 肚子又在作怪啦, 老侯這一身肉倒結實, 可惜太瘦。咬一口罷。餓荒了! 人肉怎麼吃? 肚子裏邊兒盡抽! 怎麼好? 吃屎! 他媽媽的, 肚子餓, 管不了許多。穿衣服。啊, 好冷!

…… 別怕髒, 把蓋兒揭了。鼓起勇氣, 奮勁, 來, 一, 二, 三, 揭! 啊, 多臭! 不能吃, 他媽媽的, 老子吃不來。再挨回兒餓再說吧。(〈獄嚙〉)

가를 분석하고, 작가가 전쟁·질병·기아를 소설의 소재로 삼은 이유를 초보적으로 논의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류>·<구가 소령>·<중국 1931>·<우리 세대> 등 소설에는 모두 전쟁에 관한 묘사가 있지만, 작품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서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작가의 창작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스잉이 형식으로 현실에 참여했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말년에 왕징웨이(汪精衛) 괴뢰정부의 '평화구국(平和救國)' 정책에 동조한 것도, 이 창작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묘지>에서는 죽어 가는 사람을 훨씬 더 아름답고 숭고하게 묘사하기 위해 폐결핵이라는 장치를 이용했으며, 폐결핵을 둘러싼 공상을 통해 링 아가씨의 죽음을 미화하고 있다. <옛집>과 <부친>에서 아버지의 병은 주인공인 '나'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세 의사의 광병>과 <백금의 여체 조각상>은 작중인물이 같고 플롯도 거의 같지만, 전자는 주로 세 의사의 심리를 묘사하였고, 후자는 "백금의 여체"에 관한 묘사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두 작품에서는 모두 여성 폐결핵 환자가 에로틱하고 성적 욕구가 강하다는 고전적인 생각을 작품 속에 반영하여, 남성 의사의 내심독백, 의식의 흐름 등의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남북극>의 주인공은 물로 배를 채우다가 급기야 다른 사람의 밥을 빼앗아 먹는 지경에 이른다. <중국 1931>에서는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닷새 동안 굶고 있다. <감옥의 울부짖음>의 주인공인 '나'는 배가 고프다 못해 동료 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변기 안의 대변을 먹을 생각까지 한다. 무스잉은 자신의 작품 속에 가난한 농민과 도시 빈민의 기아를 묘사함으로써, 1930년대 중국의 급변하는 시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의 근대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무스잉의 소설이 당시 유행한 프롤레타리아문학과 추종하면서도 반항하는 관계를 이룬다는 견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상하이의 모더니즘문학은 프

몰레타리아문학으로부터 영감(靈感)을 얻었으며, 문학적 상상력·서술 형식·도덕적 비판에 대한 열정을 획득하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문학은 모더니즘문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심지어 양자는 공생(共生)·공존(共存)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sup>27)</sup>

요컨대 소설 속에 전쟁·질병·기아를 재현하는 것은, 작가의 관심이 전쟁·질병·기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작중 인물에 미치는 영향 혹은 플랫폼의 구성과 전개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있는 것이다.

#### < 參考文獻 >

- 사라 네틀턴(Sarah Nettleton) 지음, 조효제 옮김,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서울: 한울, 1997.
- 수잔 손택(Susan Sontag) 지음,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 서울: 이후, 2002.
- 신영덕 지음, 《전쟁과 소설》,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7.
- 신희천·조성준 편저, 《문학 용어 사전》, 서울: 도서출판청어, 2001.
- 정제림, <전쟁 기억의 소설적 재현 양상—유년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6.
- 진순애 지음, 《전쟁과 인문학: 전쟁과 혁명의 문학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 프레더릭 F. 카트라이트(Frederick F. Cartwright) & 마이클 비디스(Michael Biddiss) 지음, 김훈 옮김, 《질병의 역사》, 서울: 가람기획, 2004.
- 황상익 편역, 《재미있는 질병과 인간의 역사》, 서울: 동지, 1991.
- 헨리 지거리스트(Henry Sigerist) 지음, 황상익 옮김, 《문명과 질병》, 파주: 한길사, 2008.

27) 曠新年, <穆時英的佚作《中國一九三一》> (《杭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3年04期): 穆時英與當時流行的左翼文學構成了既追隨又反抗的關係。(p.41) 然而, 同時上海的“現代主義”文學又從左翼文學那里吸取了靈感, 獲得了文學的想象力、敘述形式和道德批判的激情。(p.42) 左翼文學和左翼經驗從根本上來說是一種城市的產物, 都是一種城市的產物, 都是一種現代性經驗, 和現代主義有着密切的聯系, 甚至可以說與現代主義有着共生共存的關係, …… (p.42)

曠新年, <穆時英的佚作《中國一九三一》>, 《杭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3年04期.

李楠, <一個人的戰爭和歷史——穆時英小說《我們這一代》印象>, 《上海文學》, 2006年02期.

穆時英, 《公墓》, 上海: 現代書局, 1933.

穆時英, 《南北極》(改訂再版本), 上海: 現代書局, 1933.

穆時英, 《白金的女體塑像》, 上海: 現代書局, 1934.

穆時英, 《聖處女的感情》, 上海: 良友圖書印刷公司, 1935.

穆時英著, 嚴家炎、李 編, 《穆時英全集》第1—3卷, 北京: 北京出版社出版集團 & 北京十月文藝 出版社, 2008.

王貞蘭, <“我”——孤獨的行者——論穆時英小說的敘述視角>, 《湖南科技學院學報》, 2006年04期

張勇, <穆時英的小說佚作《上海的季節夢》>,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6年06期.

< 中文提要 >

據說戰爭、疾病、飢餓是施加於人類頭上的三種原罪或三個敵人。它們經常在人類歷史上一起出現, 使人類陷入更大的不幸當中, 極大地影響了整個人類社會。戰爭、疾病、飢餓之間有必然的聯係, 因此它們一起出現並不是偶然的現象。古往今來, 不管哪個國家、哪個時代, 無不存在反映戰爭、疾病、飢餓的文學作品。

本論文關注在中國現代小說裏重現的戰爭、疾病、飢餓等問題, 通過對穆時英小說的分析, 探討作品中重現的戰爭、疾病、飢餓等情況。並初步探討它們在作品情節的構成和展開之中起着怎樣的作用, 以及作者把戰爭、疾病、飢餓當作小說的素材或主題的原因。由於二十世紀三十年代中國現代主義小說與同時代的無產階級文學有着密不可分的關係, 本論文也試圖探討穆時英的小說與無產階級文學的相互影響關係。

關鍵詞: 戰爭、疾病、飢餓、穆時英、中國現代小說、二十世紀三十年代。

www.kci.go.k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 3. 25	2010. 4. 30	2010. 5. 6	2010. 5. 7	2010. 5. 31